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다큐멘터리 '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 월드컵 D-6, 메인 포스터와 예고편 공개! 마침내 하나가 된 '황금세대', 그들의 솔직한 마음은?

2026. 6. 5.



오는 6월 11일(목) 오후 6시 공개를 확정된 쿠팡플레이 다큐멘터리 <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가 북중미 월드컵 개막까지 단 6일을 앞두고,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뜨거운 각오가 담긴 포스터와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다.

<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는 대한민국 축구 황금세대의 운명이 걸린 북중미 월드컵, 승리를 위해 국대 축구팀이 달려온 594일간의 여정을 담은 쿠팡플레이 다큐멘터리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 끊이지 않는 잠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선수들의 가장 진솔한 속마음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담아냈다.

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조규성의 비장한 눈빛과 함께, '황금세대의 북중미를 향한 여정'이라는 문구가 담겨 벌써부터 축구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이들을 비롯해 이재성, 황인범 등 유럽 빅리그 주역들이 총출동한 현재 대표팀은 역대 최고 수준의 개인 능력을 갖추어 대한민국 축구사에 가장 빛나는 '황금세대'로 불린다.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이들의 집념과 그간 밝히지 못했던 속사정이 궁금증을 자극한다.









함께 공개된 메인 예고편 속 선수들의 인터뷰에는 594일간의 여정 동안 태극마크의 무게를 감수하고 입증하기 위해 참아왔던 솔직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박용우의 고백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황금세대’라는 타이틀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만큼, 이번 월드컵에 선발된 선수들이 짊어진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이 얼마나 막중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되지만, 황금세대의 도전은 이미 시작됐다. “과정은 힘들겠지만 기회라 생각한다”던 오현규의 말대로, 이들의 단단한 집념은 다시 한번 이변을 겨냥한다.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며 전열을 가다듬는 손흥민의 결연한 모습은, 모든 의구심을 깨부수고 ‘원팀’으로 거듭날 태극전사들의 담대한 활약을 예고한다.

함께라면 두려울 것 없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뜨거운 여정을 담은 <국대: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는 6월 11일(목) 오후 6시 쿠팡플레이에서 첫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